

일반문학의 결가지가 아닌 아동문학만의 정체성을 찾아서



국제아동문학연구 협회장을 역임한 마리아 니콜라예바 교수는 아동문학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동을 위한 문화이라기보다 “어른들이 아동을 교육시키기 위한 독서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의 한 갈래로 파악되어 나름의 독자적 위치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서적 시장의 팽창에 비례하듯 아동문학 비평서와 이론서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두 책은 기존의 수동적인 아동문학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아동문학만의 독자적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

김제곤 지음 | 창작과비평사 | 288쪽 | 값 12,000원



아동문학에 관한 비평서의 출판풍토는 적박한 편이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 김제곤 선생이 내놓은 《아동문학의 현실과 꿈》은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아동문학 비평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저자는 먼저 동시론의 부재를 지적한다. 장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진지한 문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동시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동심의 목소리로 세상과의 소통을 말할 수 있는 문학장르이다.

‘동심이란 친진한 마음이며 흐려지지 않는 눈이고 솔직한 입’이라는 이원수의 정의를 빌려 현실에 발 딛은 동심과의 소통이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문학작품과 동심과의 소통 여부이다.

또 아동문학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막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아울러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굴절된 역사를 지나며 형성된 우리 아동문학의 특질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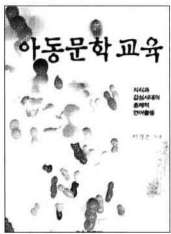
1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오늘까지 동시가 걸어온 역사를 짚으면서 우리 동시의 원형을 구전동요에서 찾아내고 있다. 초등 국어교과서와 친편일률적인 시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은 2부에서는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경시대회와 시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문학교육을 통렬히 지적한다. 3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만한 동시인들의 세계를 분석하고 오늘의 동시 모습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가 아동문학과 현실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호 불호를 명확히 가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문학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문학적 자

의식에 매몰돼 어린이들의 현실과 감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와 문학적 표현을 남발하고 있는 동시들을 실명을 거론하며 과감히 비판한다. 우리 동시가 아이들 본연의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로 구전동요를 내세우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주로 아동문학 작품론이 담겨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작품과 주관 속에 매몰되지 않은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답안을 찾아내려는 흔적을 담아냈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아동문학이 이루어놓은 빛나는 전통이 무엇인지 진지한 탐색과 반성이 이루어질 때 이 책의 효용가치가 더 발할 것이라고 말로 저자는 주문한다.

《아동문학교육》



이정은 지음 | 교육과학사 | 536쪽 | 값 23,000원

아동문학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아동문학을 연구하려는 이들을 위한 아동문학이론서이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학자인 저자가 10여 년 간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실체를 통해 적용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쓰여졌다.

저자는 서구교육자들이 주장하는 아동중심 문학운동이 이미 우리 한국 전통문학 속에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바리 공주의 일대기, 콩쥐팥쥐 이야기에서부터 신화에 이르기까지 서양동화 못지 않은 훌륭한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아동문학은 아동의 학습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아동문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기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또 정서와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책을 통해 여러 가치를 간접 체험하고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부에서는 아동문학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기 위해 아동문학의 특성을 일반문학과 구별지어서 살펴보았다. 아동문학의 목표와 교육적 가치, 교육적 활용 등을 소개하고 아동문학이 아동의 발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였다. 또 아동문학의 요소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제시해준다.

2부에서는 아동문학의 종류를 다루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의 갈래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장르 구분도 일반문학 장르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동시, 전래동화, 환상동화, 사실동화, 극, 그림책, 지식 정보책 등 아동문학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문학 교육과 차별성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3부에서는 아동문학의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문학에 있어서 언어교육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활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때문에 '아동 중심 교육과정'을 따라 아동문학 교육의 초점을 교육자가 아닌 학습자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동문학을 통해 전통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을 통해서만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아동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강경희기자